

영어 단순형의 상

박 노 민
(강릉대학교)

Park, Nomin. 2001. *Aspect of the English Simple Forms*.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2, 295-309. The simple forms in English have mostly been investigated in terms of tense, especially by those who do not distinguish between tense and aspect in English. However, we often find some usages of the simple forms that do not seem to fit in any of the meanings of ten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aspectual meanings out of the simple present and past forms by re-analyzing their meanings in terms of aspect. It turns out that they represent the perfective aspect seeing a situation as a whole with no beginning, middle and end. As for the controversial stative situations in the simple forms, they have been proven to show the perfective aspect, too, if we agree to see both the part and whole in state as having the same features. And syntactic evidences from the simple forms and their corresponding progressive forms compared also show that the habitual dynamic situations represent the same aspect in the simple forms.

1. 서론

영어 동사의 단순형(simple forms)에는 단순현재(simple present)와 단순과거(simple past)가 있고 이들은 주로 시제(tense)의 범주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들이 영어의 대표적인 시제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단순히 시제의 의미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여러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3)의 예를 참조).

최근에 화자의 발화시간을 중심으로 지시적 시간(deictic time)을 나타내는 시제와 화자의 시간과는 관계없이 상황 자체의 비지시적 시간(non-deictic time)을 나타내는 상(aspect)을 구분하여 별도의 문법범주로 간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또한 영어에서도 상을 인정하는 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302쪽 참조). 그러나 영어에서 상은 진행형(the

progressive)과 완료형(the perfect)이 주요한 기술 대상이었고 단순형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¹⁾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영어 단순형의 의미를 보다 밀도있게 고찰하기 위해 상의 관점에서 영어의 단순형이 과연 어떠한 상적 의미(aspectual meanings)를 나타내는지 객관적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2절과 3절에서 상의 관점에서 각각 단순현재와 단순과거의 의미와 일반적 용법을 재검토해 보고 어떠한 상적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4절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단순현재

2.1. 단순현재의 용법

우선 단순현재는 화자의 발화 시간(speech time)과 거의 혹은 완전히 일치하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운동 중계방송, 시범(demonstration), 무대 지시 등이다.²⁾

- (1) a. Jones passes and Lineker heads the ball into the net.
(축구 중계)
- b. Hill runs off to try and get the penalty. (럭비 중계)
- c. Now I put the cake-mixture into this bowl and add a drop of vanilla essence. (요리 시범)
- d. I place the rabbit in the box and close the lid. (마술사의 시범)
- e. John enters through the window. (무대 지시)
- f. The bell tolls! He yields! The spectre vanishes! (무대 지시)

단순현재에서 수행동사(performance verbs) 혹은 진술동사(verbs of statement)를 사용하면 그 상황은 발화 시간과 완전히 일치한다:

¹영어에서 완료형을 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학자에 따라 의견이 엇갈린다. 이것은 완료형이 상의 정의에 따라 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줄고 1999:5-23 참조).

²본 논문의 예는 주로 ICE corpus와 기존 문법서에서 인용하였고 일부는 필자가 만들었다.

- (2) a. I pronounce you man and wife. (수행동사)
- b. I declare the meeting closed. (수행동사)
- c. We accept your offer. (수행동사)
- d. I call it an outrage. (진술동사)
- e. I say that you are wrong. (진술동사)

(1)과 (2)의 예는 발화 시간과 상황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단순현재가 현재를 나타내는 현재시제(present tense)의 역할을 하는 예이다.³⁾ 이들은 또한 화자의 발화와 동시에 시작하고 끝나는 순간적 혹은 그에 가까운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경우에 화자는 항상 상황을 전체적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다. 또한 (1)과 (2)의 예는 모두 진행형이 될 수 없는데 이것은 상황을 부분적으로 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단순현재가 발화시간을 포함하는 전 후의 긴 시간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예가 (1)과 (2)보다 훨씬 흔한 경우에 속한다. 다음을 본다:

- (3) a. I buy my shoes at Kim's.
- b. They know me.
- c. Cats do not eat grass.
- d. The sun rises in the east.
- e. Oil floats on water.
- f.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3)에서 단순현재는 특정 시간대에 한정되지 않는 과거,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시간을 나타낸다. 물론 (3)에서 단순현재는 공통적으로 현재 즉 화자의 발화시에 유효한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현재시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3)은 단순한 시간적 개념보다는 습관(3a), 정태(3b), 총칭(3c), 일반적 사실(3d), 속성(3e), 격언(3f)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3)에

³현재시제에는 단순현재를 포함하여 현재진행형, 현재완료형이 있다. 따라서 단순현재라는 용어는 시제의 용어이다. 반면 단순형은 진행형 혹은 완료형과 대조가 되는 일정한 문법적 형태를 가리키는 또한 특정의 문법적 의미가 배제된 객관적 용어이다.

서 시제와 더불어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단순현재가 어떻게 위의 여러 의미를 나타내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3)의 예를 순서대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다음을 본다:

- (4) a. We walk to work.
 b. She makes her own dresses.
 c. Bill drinks heavily.

(4)는 (3a)처럼 단순현재의 동태동사(dynamic verbs)를 사용하여 습관을 나타낸다. 그러나 습관을 나타내는 것은 단순현재뿐 아니라 단순과거의 동태동사도 습관을 나타낼 수 있고⁴⁾ 또한 현재 진행형 역시 습관을 나타낼 수 있다. 다음 예를 본다:

- (5) a. We are walking to work.
 b. She is making her own dresses.
 c. Bill is drinking heavily.

(5)의 현재 진행형에서 2가지 종류의 의미를 읽을 수 있다. 첫째 'What are(is) you(she, he) doing now?'에 대한 답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의미이다. 다른 하나는 (4)와 같은 습관의 의미이다. 그러면 (4)의 습관과 (5)의 습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4)와 (5)는 모두 주어의 습관을 나타내지만 화자가 상황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 화자는 (4)에서 단순현재를 사용하여 주어의 습관이 고착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5)에서는 현재진행을 사용하여 주어의 습관이 일시적임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5a) 다음에 'but we'll soon stop walking and drive to work'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이것을 다시 표현한다면 화자는 (4)에서 주어의 습관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으나 (5)에서는 주어의 진행중인, 그래서 언제나 바뀔 수 있는 습관을 부분적으로 보고 있다.

(3b)처럼 단순현재에서 정태동사(stative verbs)를 사용하면 (3a)나 (4)같은 습관을 나타낼 수가 없고 그 대신 일정한 상태가 지속되는

⁴⁾단순과거는 307-308쪽 참조.

상황을 나타낸다. 정태동사의 어성(aktionsart)은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으며 부분과 전체가 서로 구분이 안되는 특성을 가지고 따라서 시작과 끝의 확실한 경계를 갖지 못한다(Leech 1986:8 참조). 다음을 본다:

- (6) a. *The boys respect their teacher since last year.
b. *He knows the answer till five in the afternoon.

(6)은 의미적으로 단순현재에서 정태동사가 시간적인 경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잘 알려진 것처럼 정태동사는 진행형이 될 수 없다:

- (7) a. *The boys are respecting their teacher.
b. *He is knowing the answer to the question.

화자가 진행형을 사용하면 주어진 상황의 일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중인 것을 나타낸다. 그런데 (7)에서 보듯이 정태동사가 진행형을 수용할 수 못한다는 것은 화자가 정태동사의 상황을 부분적으로 보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사적 증거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정태동사가 진행형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 (8) a. Peter is unusually being patient with the children.
b. You are looking a little depressed.
c. They are living in Seoul.

(8)의 예는 얼핏 정태동사가 진행형이 되어 화자의 부분 관점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8)에서는 보통의 경우에 정태동사인 be, look, live가 진행형이 되어서 동태동사에 가까운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cf. Quirk et al. 1985:200). 따라서 (8)과 같은 예가 화자가 정태동사를 부분적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예가 될 수 없다.

(3c)는 고양이에 관한 총칭적 사실(generics)을 나타낸다. 이러한 종류의 문장은 대개 'Subject has the characteristics of ...'의 의미

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어에 대한 사실을 전체로 보는 셈이다. 비슷한 예를 들어본다:

- (9) a. Fundamentalist Muslims take the Koran literally.
b. Reeds bends but do not break in the wind.

(9)의 예도 진행형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총칭적 의미를 잃어버린다:

- (10) a. Fundamentalist Muslims are taking the Korean literally.
b. Reeds are bending but are not breaking in the wind.

(10)에서 진행형은 주어의 총칭적 사실이 아니라 일시적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

(3d)와 (3e)는 모두 일반적 사실을 나타내지만 조동사 will을 사용했을 때 차이가 있다(Palmer 1986:61 참조):

- (11) a. ?The sun will rise in the east.
b. Oil will float on water.

(11a)에서는 (3d)가 가지는 일반적 사실의 의미를 잃어버리지만 (11b)는 (3e)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3d)와 (3e)에서 모두 주어진 상황을 전체로 보는 일반적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을 진행형으로 하면 원래의 의미와는 종류가 다른 현재의 개별적 상황을 나타내게 된다.

- (12) a. The sun is rising in the east.
b. Oil is floating on water.

(3f)와 같은 격언도 일반적 사실의 일부로 볼 수 있고 진행형이 되면 원래의 의미와 전혀 다르게 변한다:

- (13) God is helping those who help themselves.

위에서 단순현재와 그의 진행형을 비교했을 때 공통적으로 단순현재에서 화자가 상황을 보는 관점이 대응되는 진행형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단순현재의 습관은 일반적이고 진행형의 습관은 일시적이다. 또한 단순현재의 사실은 일반적인 반면에 진행형의 사실은 특수한 경우의 사실이 된다.

지금까지 (3a)-(3f)에서 동태동사 중에서 지속동사(durative verbs)와 정태동사를 단순현재에서 사용할 때 나타내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중 (3b)의 정태동사를 제외한 동태동사의 경우는 내면적으로 보면 모두 습관 혹은 습관을 확대한 유사한 상황을 나타내는 공통점을 보인다. (3a)는 그대로 습관을 나타내며 (3c)는 여러 개체들의 공통적인 특징 혹은 되풀이되는 상황이므로 습관과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d), (3e), (3f) 역시 넓게 보면 개별적 상황의 반복에 의한 결론이라고 볼 때 습관과 관련성이 있다.

2.2. 단순현재의 상

우선 단순현재의 상을 보기 전에 시제의 기능부터 잠깐 보기로 한다. 최근까지 단순현재는 거의 시제의 관점에서 고찰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시제의 기능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Zandvoort(1962:59)는 단순현재의 용법을, 중립적 현재(nertral present), 반복적 현재(iterative present), 실제 현재(actual present)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중립적 현재란 특정한 시간에 국한하지 않는 일반적 사실을 나타내는 (3c, 3d, 3e, 3f)와 같은 예를 가리킨다. 반복적 현재는 중립적 현재와 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좁혀진 시간대의 범위 안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3a)가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실제 현재에는 화자의 시간과 상황의 시간이 일치하는 (1), (2)와 (3b)가 속한다.

이러한 단순현재의 용법이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이들은 모두 화자의 시간과 일치하거나 전, 후로 시간대가 형성되어 있다. 개념적으로 현재라는 시간을 화자의 시간을 포함하는 전, 후의 시간으로 정의한다면 단순현재는 분명히 글자 그대로 현재 시제의 기능을 가진다. 단순과거가 나타내는 시간이 화자의 시간을 배제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의미적인 면으로도 분명히 단순현재는 단순과거와 구별되는 별도의 시제임을 알 수 있다.

단순현재가 가지는 상의 기능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대표적인 상의 분류인 완전상(perfective aspect)과 불완전상(imperfective aspect)의 정의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⁵⁾ 다음을 본다:

(14) John was reading when I entered.

Comrie(1976:3-4)는 (14)에서 진행형 'was reading'은 불완전상, 단순과거 'entered'는 완전상을 나타낸다고 기술한다. 그에 의하면 완전상은 화자가 지시하는 상황의 내적 시간구성(internal temporal constituency)을 무시하고 상황을 전체(totality)로 나타낸다. 좀 더 구체적으로 Comrie는 완전상에서는 "상황이 하나의 분석할 수 없는 전체로, 따라서 시작, 중간, 끝이 하나로 합쳐진다"고 말한다. 반면에 불완전상은 완전상과는 반대로 "상황의 내적 시간구성을 분명하게 지시한다"고 설명한다. Comrie의 설명을 쉽게 풀이한다면 완전상은 상황을 전체로 보는 관점이며 불완전상은 상황의 시작과 끝을 배제한 중간을 부분적으로 보는 관점을 말한다.

(1)-(13)에서 기술한 단순현재의 용법을 보면 단순현재와 완전상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우선 화자의 발화시간과 동일한 시간의 상황을 나타내는 (1)과 (2)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1)과 (2)는 시간적으로 화자의 시간과 더불어 순간적 혹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래서 (1)과 (2)에서 화자는 단순현재를 사용하여 짧은 시간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다. 상황 자체가 화자로 하여금 시간적으로 분석할 여유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기술한 것처럼 (1)과 (2)가 진행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여기에서 사용되는 단순현재가 완전상임을 말해주는 통사적 증거가 된다.

(3b)처럼 화자가 단순현재에서 정태동사를 사용하는 예에서 단

⁵⁾영어에서 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지만 많은 학자들이 영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두 개의 상, 즉 완전상과 불완전상을 적용할 수 있다고 동의하고 있다. 특히 Comrie(1976)는 여러 언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상의 표현을 크게 완전상과 불완전상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순현재의 상을 규명하는 것은 (1)과 (2)처럼 간단하지 않다. 다음을 본다:

- (15) a. The boys respect their teacher.
b. He knows the answer to the question.

(15)에서 정태동사 'respect' 와 'knows' 가 단순현재에서 정태를 나타낸다. (15)를 진행형으로 하면 (7)에서 본 것처럼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고 이것은 단순현재의 정태동사가 상황을 부분적으로 보는 것을 허용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15)에서 단순현재가 완전상이라는 통사적 증거이다.

이번에는 (15)에서 단순현재의 상을 의미적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먼저 정태는 전체로서 존재한다는 Hirtle(1975:27-28)의 주장을 보기로 한다:

- (16) A state, unlike an action, cannot be seen as incomplete ...
a state, being a homogeneous event, exists as a whole
during each and every instant of its duration.

필자는 (16)의 주장에 동의하며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풀어 보기로 한다. 정태는 지속(duration), 불변화(no change), 무한계(no limit), 비동작구성(non-agency)의 특성을 합한 유형의 상황이다. 단순현재의 정태는 화자의 시간을 포함한 명확한 경계가 없으며 변화가 없는 지속적인 상황을 가리킨다. 정태가 명확한 경계가 없이 지속적인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6) 참조) 진행형의 상황과 유사하지만 정태의 상황은 불변화, 진행형의 상황은 계속적 변화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정태의 특징인 불변화는 동질성(homogeneity)을 말한다. 정태의 상황은 순간 순간이 동질적이기 때문에 부분과 전체를 구분할 수가 없다. 또한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동질적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전체를 구성하는 내적 시간적 구성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동태와 차이를 가져오는 정태의 중요한 차이점이다. 이러한 정태의 본질적 특성 때문에 단순현재의 정태를 사용하는 화자는 상황을 전체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Comrie(1976:49-51)는 영어의 단순현재에서 사용되는 정태의 예를 들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정태가 불완전상과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다고 기술하면서 그 이유로서 정태가 나타내는 지속성을 든다. 그러나 영어에서 정태가 진행형과 결합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확인하였고 그것은 의미적으로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정태는 불변화의 지속을 나타내지만 동태는 계속적 변화의 지속을 나타내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3b)와 (15)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현재의 정태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에 화자는 단순현재를 사용하여 동사의 의미를 내적인 시간적 의미가 아닌 외적인 혹은 전체적인 의미를 전달한다.

(3)에서 (3b)를 제외한 나머지 예는 모두 단순현재의 동태동사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특히 이들은 (1)과 (2)와는 다르게 지시하는 행위가 한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혹은 거의 영구적으로 반복된다. 그래서 이경우의 단순현재를 습관상(habitual aspect)이라 부르기로 한다.⁶⁾ 그러면 습관상은 상위 범주로 완전상과 불완전상 중 어디에 속할까?

Comrie(1976:24-32)는 습관상 'used to'에 대해 기술하면서 불완전상의 하위 범주로 보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그는 단순현재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다만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used to'를 불완전상으로 보고 있다면 습관을 나타내는 단순현재도 역시 불완전상으로 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Freed(1979:15)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

(17) She gets up at 9:30 every day.

Freed는 (17)을 가리켜 "imperfective and habitual"하다고 기술한다. 이것은 (17)이 습관을 나타내며 이때 습관은 불완전상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역시 단순현재에 관해서

⁶⁾ 습관상과 그의 비슷한 용어인 반복상(iterative aspect)은 구별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He coughs every night.'에서 단순현재는 습관상이고 동사 cough의 의미는 반복상이다. 화자의 관점을 나타내는 문법상과 동사 또는 문장의 상적 의미인 어성(aktionsart)을 구별한다면 전자는 상이고 후자는 어성이다.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17)의 예로 볼 때 습관의 단순현재를 불완전상으로 보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습관의 의미를 완전상의 관점에서 보는 견해도 있다. Hirtle(1967:47)의 주장이다:

(18) Customary events are normally felt to be perfective and as such are expressed by the simple form. The impression of "all the way through it is all the same" permits the mind to envision one occurrence of the event as representative series.

(18)에서 습관을 완전상에서 본다는 이유는 (16)에서 기술한 완전상에서 정태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는 주장과 비슷한 논리이다. 다시말해서 습관이란 개별적으로 동일한 이벤트(event)의 집합이라고 본다면 화자는 하나의 이벤트를 습관을 대표하는 이벤트로 본다는 것이다.⁷⁾ 정태에서 부분과 전체가 동일한 것처럼 습관에서도 부분과 전체가 구분이 안되는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Leech(1987:9)는 습관을 정태의 일종으로 본다:

(19) The habitual present represents a series of individual events which as a whole make up a state stretching back into the past and forward into the future.

(19)에서 Leech는 단순현재의 습관은 개별 이벤트의 연속이고 이것이 정태를 형성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16)에서 정태는 완전상과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19) 역시 결국은 습관의 단순현재가 완전상이라는 주장과 방향을 같이하는 셈이다.⁸⁾

그러나 (19)처럼 정태와 습관을 동일시하는 것은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태를 나타내는 동사의 어성은 당연히 정태이지만 습관

⁷ ... events are dynamic situations viewed as a complete whole (perfectively), whereas process are dynamic situations viewed in progress, from within (imperfectively). (Comrie 1976:13)

⁸ 그러나 Leech 자신은 습관을 불완전상과 결부해서 기술한 적은 없다.

을 나타내는 동사의 어성은 동태이다. (19)에서 주장하듯이 동태의 이벤트가 모인다고 해서 정태가 될 수는 없다. 다음을 본다:

- (20) a. He takes a walk after dinner every day.
 b. He is taking a walk after dinner every day.

(20a)는 습관을 나타내는 단순현재의 문장이고 (20b) 역시 습관을 나타내는 진행형이다. (20)에서 알 수 있는 것은 (20a)가 정태가 아닌 동태의 문장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6)에서 보았듯이 정태는 진행형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단순현재의 습관은 정태가 아닌 동태를 나타낸다.

(20)에서 우리는 다른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은 습관의 단순현재가 완전상과 불완전상 중 어디에 속하는가를 규명하기 위한 결정적인 통사적 증거를 제시해 준다.

(20)의 두 문장은 모두 습관을 나타낸다. 따라서 단순히 습관이 완전상과 불완전상 중에 어느 것과 결합할 수 있는가는 의미가 없는 물음이다. (20)에서 습관은 (20a)에서 단순현재로 (20b)에서는 진행형현재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문법형태는 습관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 전자에서 화자는 주어의 습관을 전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후자에서 화자는 주어의 일시적인 그래서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습관 혹은 일시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전자에서 화자의 관점은 완전상이고 후자에서는 불완전상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을 본다:

- (21) a. The sun is rising in the east.
 b. Oil is floating on water.

(21)의 두 문장은 각각 (3d)와 (3e)를 진행형으로 바꾼 것이다. 대응되는 단순현재와 진행형을 비교해 보면 보다 쉽게 단순현재의 상을 확인할 수 있다. (3d)가 태양의 운동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라면 (21a)는 현재의 태양의 운동을 묘사하고 있다. (3e)와 (21b)도 동일한 설명을 적용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단순현재와 진행형은 각각 완전상과 불완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3. 예외적 용법

단순현재가 현재를 제외한 과거 혹은 미래 시간만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다음은 단순현재가 미래를 나타내는 예이다:

- (22) a. We dine at the Jones' tonight.
 b. The celebration takes place somewhere in July.
 c. The chairman retires at the end of the year.

(22)는 화자의 발화시간을 기준으로 확실히 결정된 그래서 주어에 의해 통제될 수 없는 미래 상황을 나타낸다. 또한 (22)에서 화자는 주어진 상황의 내적 시간구조는 고려하지 않고 전체의 상황만 고려한다. 따라서 (22)의 단순현재는 예외적 용법이기는 하지만 완전상의 기능을 갖는다.

다음은 단순현재가 과거를 나타내는 예이다:

- (23) a. He enters the room, seizes the burning object, and flings it out of the window. (역사적 현재)
 b. Two gangsters escape from the prison. (신문 머리 기사)
 c. The book of Exodus relates how the Israelites leave Egypt, pursued by the Pharaoh, and wander through the desert for many years. (요약)

(23)에서 단순현재는 과거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기술하는 기능을 갖고 시간적인 면에서 단순과거와 같은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여기서 단순현재는 완전상이다.

3. 단순과거의 상

시제의 관점에서 단순과거(simple past)의 기본 용법은 화자 시간 이전의 과거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 단순과거는 영어의 양 시제 중의 하나인 과거시제이다. 단순과거의 상을 보기 위해서 단순현재와 마찬가지로 정태와 동태로 구분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다음을 본다:

- (24) a. They played baseball yesterday.
 b. He always took a walk after dinner.
 c. She once liked reading French novels.

단순과거의 상은 단순현재와는 달리 비교적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24a)는 과거의 행위 (24b)는 과거의 습관 (24c)는 과거의 정태를 나타낸다. 그러나 단순과거는 어떠한 종류의 상황을 나타내든 간에 모두 과거의 일정한 시간에 발생해서 현재 이전에 끝났기 때문에 화자의 시간에서 볼 때 처음과 끝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 즉 단순과거는 정태이든 동태이든 관계없이 완전상의 기능을 가진다. 다음을 본다:

- (25) a. They were playing baseball yesterday.
 b. He was always taking a walk after dinner.

(24a)와 (25a), (24b)와 (25b)를 비교하면 단순과거의 상이 보다 분명해진다. (25)의 과거진행형은 (24)의 단순과거와 비교할 때 시제는 동일한 과거시제이지만 불완전상이라는 다른 상을 나타낸다.

(24c)와 같은 정태는 단순현재에서 이미 논의된 것처럼 부분과 전체가 동일하므로, 다시 말해서 부분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완전상과 어울린다고 볼 때 단순과거도 역시 완전상으로 보는 것이 옳다. 특히 단순과거의 정태는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현재가 배제되었으므로 화자의 관점에서 종료가 더욱 분명하고 따라서 상황을 전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완전상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영어 단순형인 단순현재와 단순과거의 용법을 통해서 단순형이 시제의 기능뿐 아니라 완전상이라는 상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태의 상황에서 단순현재의 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자에 따라 이견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동태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완전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단순형은 시제뿐 아니라 상의 기능을 갖는 영어 동사의 2가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특히 영어의 단순형은 진행형과 함께 각각 완전

상과 불완전상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박노민. 1999. 상의 정의. 《영문법》 3, 5-23.
 Brinton, L. J. 1988. *The Development of English Aspectual Syste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mrie, B. 1976. *Aspe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reed, A. F. 1979. *The Semantics of English Aspectual Complementation*. Dordrecht: D. Reidel Publishing Company.
 Hirtle, W. H. 1967. *The Simple and Progressive Forms: An Analytic Approach*. Quebec: Les presses de l' universite Laval.
 Hirtle, W. H. 1975. *Time and Aspect and the Verb*. Quebec: Les presses de l' universite Laval.
 Leech, G. N. 1987. *Meaning and the English Verb*. London: Longman.
 Palmer, F. R. 1986. *The English Verb*. London: Longman.
 Zandvoort, R. W. 1962. *A Handbook of English Grammar*. London: Longman.

박노민
 강원도 강릉시 지변동 123
 강릉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우편번호: 210-702
 전화번호: 033)640-2122
 E-mail: nmpark@knusun.kangnung.ac.kr

접수일자: 2001. 4. 9.

게재결정: 2001. 5. 31.